



Web Contents



2024년 05월 07일 07시 31분

목포, 젊은 작가와의 만남 - 서영채 평론가

2020.10.08 조회수 947 등록자 이정안

목포, 젊은 작가와의 만남 < 서영채 평론가 >
풍경이 온다 - 공간, 장소, 운명에

2020년 10월 17일 토요일 2~4시
목포문학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참가인원은 선착순 50명입니다.

문학관 홈페이지 교육신청란에서 선착순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바랍니다.

목포, 젊은 작가와의 만남 - 서영채 평론가 · 풍경이 온다 _ 공간, 장소, 운명에

2020년 10월 17일 토요일 2시~4시
목포문학관



■ 서영채 약력

목포에서 태어나 어린시절을 보냈다. 1973년 2월 목포를 떠난 이후로 계속 서울 살이를 하고 있다. 20대 때는 주로 시를 썼고, 30대 이후로는 공부를 하며 주로 평론을 쓰고 있다. 『태풍』, 『소설의 운명』, 『사랑의 문법: 이광수, 염상섭, 이상』 『문학의 윤리』, 『아침의 영웅주의』, 『인문학 개념정원』, 『미메시스의 힘』, 『죄의식과 부끄러움』, 『풍경이 온다』 등의 책을 썼다. 21년간 계간 『문학동네』 편집위원을 지냈고, 17년간 한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있었다. 현재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에 재직중이다.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서영채-작가와의 만남001.jpg (478 hit/ 117.8 KB) ↓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2020 목포문학제 개최

다음글
제12회 목포문학상 수상작품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MokPo - Si
Web Contents

